

## 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1급감염병과 2급감염병의 큰 차이는 1급 감염병은 법적인 격리 의무가 부과되고, 2급 감염병의 경우 법적인 격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따라서 생활지원비도 지원 되지 않는다.

구분	제1급감염병 (현재)	제2급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sup>*25.~ 4주</sup>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격리 의무 부과</li> <li>•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li> <li>• 전실 및 용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li> <li>•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li> <li>•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li> <li>• 재택 등 자율관리</li> </ul>	
격리통지 강제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li> <li>•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관 자체 관리</li> <li>• 법적 강제 없음</li> </ul>	
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li> <li>•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수가</li> <li>• 환자 본인부담</li> <li>•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li> </ul>	
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li> <li>•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li> </ul>	

\* 제1급: 에볼라, 사스, 메르스, 패스트 등 17종 / 제2급: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1&middledot;2급 감염병 비교

2020년 1월 코로나의 존재를 알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지 752일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셈입니다.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주동안 이 행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24시간 내 바로 신고로 바뀌고, 4주 이행기 내에는 7일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지만, 이후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감염 예방

#### ①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받기

#### ②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③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은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고위험군 조기진단·조기치료

#### ④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심증상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받기

#### ⑤ (일반) 의심증상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 신속항원검사(양성 시 PCR검사), 확진 시 재택치료

## 양성평등

성 평등이란 '성별'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에 따라 서로 나누고 우열을 가리는 '성차별' 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다름을 받아들이고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 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 ★ 생활 속 고정관념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여자와 남자는 달라야 해! 라는 고정관념은 옛날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행동을 막습니다. 성 역할에 갇히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정하지 않게 대한다면 그것은 '차별'

입니다.

### ◎ 가족이 만드는 성 역할 고정관념

우리가 태어나 처음 접하는 세상인 가족은 성 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나를 대할 때, 딸과 아들로 나누어 대하거나 형제·자매가 여자다운 혹은 남자다운 모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예) 남자는 아파도 티내면 안돼~ 눈물 뚫해.

여자는 다리를 모으고 앉아야지~

### ◎ 대중매체 속에 숨어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

TV 프로그램이나 웹툰, 인터넷 동영상 등 대중매체에서 여자, 남자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존댓말이 없는 영어 대화를 번역하면서 남편은 반말, 아내는 높임말 사용  
똑같은 부모인데 남편은 이름으로, 아내는 누구 엄마로 구분

### ★ 혐오,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혐오 표현을 배우고 따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남자다운 척', '센 척'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고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약자의 위치란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하고 이동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을 호소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나 또한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혐오는 나만 비켜 가지 않습니다.

혐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일!

내가 존중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 ★ 성 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성평등은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을 떠나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자연스런 감정과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남자다움, 여자다움에서 벗어날 때,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때,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가르는 대립과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지만, 여전히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다른 가정의 학대 신고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 이런 아이를 보셨다면 신고해주세요!

- 주변에서 아동의 비명, 울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호한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동네를 배회하는 경우
-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 Q&A

#### Q. 신고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A. 의심이 된다면 주저 말고 신고해주세요. 행위자가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대 혐의 판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담당 공무원이 함께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Q. 이웃을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찌죠?

A.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신고해주세요.



### 신고방법



국번 없이 112



iOS용



안드로이드용

아이지킴이 앱